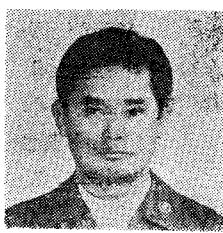




人間勝利 國際的 發明人

韓國電力公社 洪允和씨



〈洪允和씨〉

말단機能職社員에서世界的의
發明人으로浮上, 韓電研修院교
수로 일하고 있는洪允和씨. 洪씨
의 이야기는 한마디로人間勝利의
모델이다.

洪씨의發明品50여건은국내유
수의공학박사는물론세계적으로
유명한企業體에서까지찬사를아
끼지않고있다.

이처럼國際的으로인정받은훌
륭한發明品을낸洪씨지만처음
그를대하는사람은누구나「이사
람이어떻게그런훌륭한發明品을

냈을까?」하고의심할정도로홍안
의평범한인상이다. 마치시골국
민학교의곱상한선생님처럼조심
스러운洪씨. 그러나1년평균3건
의發明品을내고있다.

이때문에동료간에는물론公社
내에서「에디슨」으로불리운다. 사
실에디슨이잘던시대에태어났다면
오히려더유명한發明인이됐을법도한洪씨다. 그러나洪씨는
工業學校의문앞에도가보지않았
으며, 학력이라면인문과야간부를
다닌것이전부다. 이때문에그의
發明品들은괴담의結晶으로더욱
돋보이고있다.

洪씨가機械와인연을맺은것은
고등학교를졸업하고韓電의전신
인南鮮電氣천안지점에入社하면
서부터. 工業學校를나오지않았다는
이유로정식사원이되지도못했
다. 그러나남달리근면성실하여
쉽게두각을나타냈다. 곧이어임
대를하게됐고, 軍에서는通信兵으
로일해계속技術계통에서손을
떼지않았다.

1962年제대와함께다시韓電에
入社했다. 그는이때부터밤낮으로
전신주를오르내리며보선작업을
했다.洪씨는현장에서보선작업을
하다보니자신이절실히필요성을
느껴새로운공구개발에눈을떴다.

이때부터洪씨는남들이퇴근하
고난뒤밤을낮살아창고에서發
明作業과씨름을하다시피했다. 각
종기계공구를찾아천안시내공구
점과고물장을폐품수집장처럼해
매기도했다. 또研究하다가지쳐
눕기도했으며과로로코피를쏟은
일도여러번있었다.

이러기를2年,入社한지꼭13년
만의일이다.洪씨는자신이만든
공구를활선상태에서實驗했고, 그
찬란한成功을동료들이축하파티
까지열어주었다. 저유명한「윤
화관」이發明되는순간이었다.

國際發明展수상수회·世界각
국에서登錄된수많은發明·수를
해아릴수없는정부표창만으로도
洪씨가國際的發明人임이立證되
고있다.〈end〉